

전국체전 대비 전북 선수단 '구슬땀'

무더위도 잊은 채 성적 향상 위한 강화훈련 한창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북 선수단이 무더위도 잊은 채 강도 높은 훈련을 벌이고 있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각 종목단체마다 성적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이 한창이다. 전북 선수단이 지난달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하는 이른바 '100일 훈련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 이에 육상과 축구, 펜싱, 레슬링, 야구, 배드민턴, 역도 등 45개 종목에서 1,371명(선수 1,198명·지도자 173명)이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각 종목단체마다 자체훈련과 합동훈련, 전지훈련 등 맞춤형 훈련계획을 수

립해 진행하는 동시에 부상 방지와 컨디션 조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도자들은 올해 열린 각종 전국 대회의 결과를 분석, 타 시·도의 팀(선수) 정보를 파악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도와 도 체육회는 선수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각 종목단체 훈련장을 수시로 돌며 격려를 할 예정이며, 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강화훈련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신경쓰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병원체자원 대규모 공동연구 수행 '순항'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소장 한상섭)가 사람과 동물에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 자원을 수집·활용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거쳐 7월 10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지정했다.

병원체자원전문은행제도는 국내환경에 적합한 자원활용 및 국내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화된 수집체계 마련, 신·변종 병원체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통해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하는 병원체 자원의 수집과 분석, 관리,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며, 병원체



자원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상섭 소장은 "AI, 브루셀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남지역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확보·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지원에 기여하고 대규모 국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내일 체험 위주 '무한상상 과학캠프'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과 체험 위주의 과학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3~14일까지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STEAM과 함께하는 무한상상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과학캠프에서 다양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조별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탐구, 실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STEA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딴 STEM에 예술(Art)을 더해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

참가대상은 과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초·중·고 과학 동아리와 과학에 관심 있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 300명을 접수 순으로 선발했다.

주요 내용은 ▲탐색 과제수행으로 협동심을 키우는 'Mission Impossible' ▲STEAM & 창의과학 & 미래과학 체험 한마당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키우는 메이커 스페이스 ▲레크리에이션 ▲신비한 천체관측 ▲창의성 경진대회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스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온고을어머니합창단이 10일 오전 전주은화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꿈과 희망 전해요"

전주교육지원청 온고을어머니합창단, 재능기부 공연 호응

전주교육지원청 온고을어머니합창단(단장 이항근, 지휘자 박종철)은 10일 오전 전주은화학교(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고을어머니합창단의 재능기부 공연은 관내 학교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 매년 2회 실시해 오고 있다.

전라초 박종철 교감의 지휘로 50

여명의 합창단은 '꽃피는 아가씨', '거위의 꿈'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2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특히, 걸그룹 댄스, 기타 연주, 행복을 꿈꾸는 미술, 색소폰 연주 등 특별 객원출연자들도 기쁨을 선사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앞으로도 합창단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더 가깝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전주교육을

다짐하며,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온고을어머니합창단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온고을어머니합창단은 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2007년 창단 이래 1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주 1회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모여 정기적으로 연습하면서 밝고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간 긍정적인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인재 아카데미'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농협 재직 여성 중간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 여성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6.2%로 전국 평균(32.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위인 서울(40.3%)보다는 무려 14.1%가 낮아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이에 센터는 도내 양성평등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와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에 전북지역 거점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올해로 6년째 주력사업 중 하나로 지역여성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로 개발된 커리큘럼으로 '리더와 리더십', '여성 리더십 포지션', '여성의 리더십 행동', '핵심 리더십 역량 진단'의 4개 모듈로 진행됐으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발휘에 있어 여성리더가 주목해야 할 요소와 핵심 스킬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수료자의 적극 추천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적 혹은 관계적



고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여성리더의 지속성장을 지원하여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고위관리자 비율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조직 변화를 주도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은 조직 내(공공기관, 민간기업) 중간관리자, 지역사회리더(NGO리더, 마을공동체지도자), 미취업 상태의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63)254-3814 또는 홈페이지(www.jwv.cre.kr)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응급구조과, 연안체험안전교육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응급구조과는 해양경찰청 위탁교육으로 운영 중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광주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에서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다. 전주비전대 응급구조과는 2015년부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물놀이, 다이빙 등 수상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중형 교육을 진행했다.

정부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연안해역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물놀이 다이빙 등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들에게 안전교육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과는 교내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실에서 년중, 매월 4째주 토요일 수중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